

'본 사업은 2011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현대국악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굿모리
Good-Mori

“다매체 음악회”

Daniel Göritz Matthias Bauer

김광희 이복남 정현수

엄윤숙 이아름 최영필 류상철 최영민
권은실 권혜영 김복희 우희자 공성재

2011년 11월 1일 (화) pm7:30 우봉아트홀

| 주최 | 현대국악앙상블 ‘굿모리’

| 문의처 | 010-7517-3694

PROGRAM

• 공양(Gong Yang)

정현수 작곡

세상의 여린 것들을 간절한 눈으로 철없이 바라보는 시인 안도현의 마음에 동화되어 세상의 모든 여린 것들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불러주며 작지만 고귀한 그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간절한 공양임을 새긴다. 정성스레 한시를 읊었던 백년 전의 시창 양식을 빌어 쓰여진 정가 시창을 여기서는 정가창, 대금, 가야금에 레노베이션 버전의 피아노로 연주된다. 정간보로 기보된 원곡은 평조, 계면조를 아우르는 기본가락에 전통 가곡이 이루어내는 대위적 짜임새와 하모니를 이끌어내게 구성되었고, 시어와 시김새는 길고 짧음의 대조를 솟수의 순열에서 따낸 규칙을 적용한 리듬구조에 바탕하였다. 명료함과 흐릿함의 대비로 형성되는 아티큘레이션의 어우러짐이 주기적으로 드러나며, 특히 이번 연주에서는 전통악기와 프리스타일 피아노의 오묘한 균형적 조화를 기대해본다.

• “tanEK” for doublebass and tape (Doublebass / Matthias Bauer)

Hans Joachim Hespel

• 여창, 해금, 대금, 가야금을 위한 “꿈”(Dream)

김광희 작곡

춘원 이광수의 시조 “꿈”을 노랫말로 하여 만든 이 곡은 2007년 봄에 초연되었다. 한국의 전통 성악(voice)과 악기로 연주되는 이 곡은 한국의 5음 음계(pentatonic scale)를 바탕으로 작곡하였다. 멀리 떠난 님이 그리워 꿈에서라도 만나보고 싶어하는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표현한 시를 여창과 대금, 해금, 그리고 25현 가야금의 어울림으로 노래해 보았다.

• “DecaDance I” for guitar solo (Guitar / Daniel Göritz)

Daniel Göritz

• 가야금과 타악기를 위한 “빈녀음(貧女吟) II”(Bin-Nyu-Eum) (rev.2011)

이복남 작곡

조선에서 태어나 불행했던 여인, 허난설헌! 그녀는 조선을 대표하는 천재 시인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사회였던 당시의 현실 때문에 모진 질곡의 세월을 보내며 27세의 짧은 생을 외롭고 불우하게 마친 여인이다. 천재 예술가임에도 시대를 앞서간 여인이었기에 난설헌은 불행과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다. “빈녀음”은 “가난한 여인의 노래”를 의미하며 추운 겨울 자신의 소망은 가슴 속에 묻어둔 채 남의 옷을 짓는 고달픈 여인의 모습을 그린 허난설헌의 한시이다. 난설헌은 빈녀음에 자신의 외로움과 아픔을 투영하였는데 그러한 저자의 마음을 가야금의 음향으로 그렸다. 이 작품은 두가지 버전 –가야금 솔로를 위한 편성과 가야금과 장고를 위한 편성– 이 있는데, 오늘의 연주는 가야금과 서양타악기를 위한 편성으로 개작한 것이다.

• 즉흥연주(Improvisation) – 뱃노래(민속음악)

• 제주탱고(El Tango de Jeju)

권은실 작곡

· 초청연주 : Daniel Göritz(Guitar), Matthias Bauer(Doublebass)

· 현대국악양상불 “굿모리”(Good-Mori) : 권은실(작곡), 엄윤숙(가야금), 이아름(해금), 류상철(대금), 최영필(피아노), 최영민(피쿠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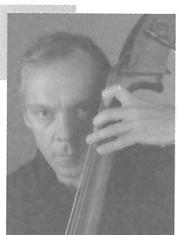
· 특별출연 : 우희자(가곡), 권혜영(아쟁), 김복희(피리), 공성재(장구), 이희주, 박성진, 김병기, 전일환(음향기술, 영상)

작곡가 프로필



Daniel Göritz (Guitar)

• 동부 베를린에서 1965년에 태어난 Daniel Göritz은, 베를린과 영국맨체스터대학과 뉴욕에서 클래식 기타를 공부하였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뉴욕의 맨하탄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99년 그는 베를린 "Hanns Eisler" 음대에서 클래식 기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또한 작곡가로서 수많은 실내악단체에게 위촉받아 연주하였으며, KNM Ensemble Berlin과 트리오 피보나치 양상블에서 솔リスト로 활동하였다. 그는 수많은 콩쿨에서 수상하였다. 그의 활동은 통역사, 작곡가, 즉흥 연주가 및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클래식, 현대음악과 즉흥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유명한 지휘자와 함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협연하였으며, 유명한 양상블들(KNM 베를린양상블, Ensemble Modern)과도 함께 연주 하였다.



Matthias Bauer (Doublebass)

• 그는 즉흥연주가, 작곡가이며 현대 음악전문 연주자이다. 1959년 출생으로 그는 1980년까지 베를린 Hanns Eisler 음대에서 doublebass을 공부했다. Lyon(1980-88)와 Cologne에서 활동한 후, 그는 1991년 베를린으로 돌아 와 즉흥연주가로서 많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연주자들과 함께 즉흥연주회를 가졌다. 그는 Georg Katzer, Lothar Voigtlander, Helmut Oehring의 현대음악을 초연하였으며, new music ensembles, unitedberlin' 그리고 양상블 'Mosaik' 단원으로 특별히 위촉된 솔로 작품들을 연주하였다. 그는 작곡가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2011년 그는 베를린의 Senat의 위촉작곡가로 선정되어 후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현대음악, 고전음악, 즉흥음악에 이르기까지 음악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며, 국음악, 무용음악프로젝트, 전자음악 등 실험적인 작업에 중점을 두며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솔로주자로 Voice Performance로도 유명하다. 그는 Maerzmusik 베를린, Ultraschall 베를린, 원헨 musicaviva, Venedig비엔날레, Warschauer Herbst, nuovaconsonanza ROM, 리옹 musique, 대구현대음악제, Wien Modern, Konfrontationen Nickelsdorf 등 유명한 국제페스티벌에서 공연하였다.



김광희 (Kwang-Hee Kim)

•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Minnesota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작곡과 이론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명지대학교 조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양대에 출강하고 있다. 운지회 회장, ISCM 한국위원회와 (사)ACL-Korea 이사, 창악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등에서 연주되었다.



이복남 (Bok-Nam Lee)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B.A) 및 동대학원을 졸업(M.A.)하고 미국 럭거스 대학(Ph.D.)에서 작곡을 공부하였다. 3회에 걸친 작곡발표회(2001 Seoul, 2009 Seoul, 2009 U.S.A)를 비롯하여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2000, 한국 문예 진흥원 후원작), 흑해 여름 축제(Black Sea Summer Festival:Concert Sinfonic in Rumania 2000), 아시아 현대 음악제(Asian Contemporary Music Festival 2002), 맨해튼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Manhattan Chamber Orchestra 2002), 럭거스 타악기 양상블 정기 음악회(Rutgers Percussion Ensemble 2002), 세계 여성 음악제(Asian Contemporary Music Festival 2003), 뉴질랜드 한국 음악 축제(Sounds Korea:A Festival of Korean Music 2004), 북경 현대 음악제(Beijing Modern Music Festival 2005), 영국-한국 교류 현대음악회(Experience Korean Contemporary Music 2006), 동아시아 국제현대음악제(Contemporary Music Festival in East Asia in Hiroshima(2009, 2010), 모스크바 국립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주최 국제음악제(Vth International Musical Festival "We Gather Friends", 2011)등 국내·외의 여러 음악제에서 작품이 연주되었다. 현재 뉴욕인국제음악제 음악 감독, (사)한국작곡가협회 이사이자 (사)한국여성작곡가회, 창악회, ISCM, 운지회 회원이며 명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정현수 (Hyun-Sue Chung)

• 서울대학교, 동 대학원(M.M.), 런던대학교 King's College (Ph.D.) 졸업
• 백병동, Sir Harrison Birtwistle 사사
• 대한민국 작곡상 실내악부문 수상, ISCM 스웨덴 세계음악제 입선
• 주계예술대학 겸임교수, 서울대, 단국대, 국민대, 한국예술영재연구원 영재발굴프로그램 강사 역임, ISCM 한국 위원회 사무총장 역임
• 현재, 전남대학교 교수, 양상블 루미나시아음악감독, 운지회 사무총장, 아시아작곡가연맹 ISCM 한국위원회 한국여성 작곡가회 창악회 회원, 광주문화재단 정책자문위원



권은실 (Eunsil Kwon)

- 계명대학교 작곡과, 동대학원졸업
- 독일Leipzig국립음대졸업(Konzertexamen), 스위스Bern국립음대졸업
- 오스트리아 모짜르테움 국립음대(Diplom)졸업
- 계명대, 울산대 초빙교수 역임
- 현재, 경북대, 계명대, 울산대, 영남대, 대가대 출강
- 대구국제현대음악제 감독, 다매체 극음악단 "PANPERA" 감독

연주자 프로필



류상철 (소금·대금)

- 경북대학교 예술대 국악과 졸업
-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경상국악관현악단 단원
- 현재, 대구시립국악단 단원



최영민 (드럼·퍼쿠션)

- 계명대학교 관현악과 졸업(타악기전공)
- 국제 뉴미디어페스티벌출연
- 중국 북경대, 산서대 한중교류음악회 출연
- 국제현대음악제, 실내악제전 등 다수 국내외 음악제 참가
- KBS 열린음악회 출연 등 다수의 방송경력
- 현재, 대구시립국악단 단원, 대구예대 출강



정윤숙 (가야금)

-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악학과 박사과정 수료
- 경북예술고등학교 · 송정여자중학교 · 한국문화공동체 BOK 강사
- 경예악회가야금연주단 회장, 소하가곡 보존회 회원
-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



최영필 (피아노)

- 계명대학교 피아노과 졸업
- 계명대학교 동문음악회 출연
- 대구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역임
- 대구예대, 김천예고 출강



이아름 (해금)

- 목원대학교 한국음악과 졸업
-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악학과 수료
-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전수자
- 대구시립국악단 단원



우희자 (가곡)

-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대구지회장
-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석사
-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소하가곡보존회 사무장
- 재)월하문화재단 한국정가·악회회원
- 사)한국 정가 진흥회회원
- 경북대학교, 미래대학교 출강



권혜영 (아쟁)

- 현) 대구시립국악단 단원



김복희 (피리)

- 현) 대구시립국악단 차석단원



공성재 (장구)

- 현) 대구시립국악단 차석단원